

8월국회 전문... 여야 벌써부터 기사움

등록금 인하·한미 FTA 비준 등 휘발성 안건 산적

민주, 민생법안 거부때 보이콧...인사청문회도 별리

오는 8월 임시국회가 보름가량 남아있는데도 여야는 벌써 신경전을 벌이며 정면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가 대학 등록금 인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등 휘발성 강한 안건의 처리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8월 임시국회를 목전에 두고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여야 간 기사움은 치열하다.

우선 정부와 한나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영리법원법·북한인권법·미디어법·집시법 개정안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들을 대거 강행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1일, 새 지도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주요 현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며 "고위당정회의는 국무총리 이하 관계 장관들이 거의 다 출석하기로 했고, 청와대 실장 등 비핵수석 대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전부 참석인원이 50여명이 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8월 임시국회 개회를 합의하면서 민생법안에 주력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반값등록금 등 주요 민생법안은 제외됐다는 점. 반면, 당정정이 이미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8

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 및 안건 22개를 이미 선정했으며 여기에는 민주당이 'MB 악법'이라 규정된 법안과 야당이 반대하는 안건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 무용론이 나오면서 파행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 권 장관 및 한 총장 내정자에 대한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우선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논의 지연을 이유로 8월 국회 '보이콧' 카드를 꺼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8월 국회에서 등록금 인하 및 대학 구조조정 관련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한나라당이 사전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8월 국회 개회 여부는 한나라당의 태도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9일 의원총회

를 열어 8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단독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를 공격하는 한편 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선의 정치는 국민 마음을 따르는 것"이라는 중국 역사서 '사기'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이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는 최악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박남대'로 불리며 천성관 검찰총장, 김태호 총리 후보자 낙마를 이끌었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박영선 정책위의장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고, 두 사람은 제보 수집 및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민주당은 19일 의원총회

한나라 '무상급식 투표' 갈등 격화

지도부 내 의견 충돌... 계파별 대립 양상도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 이 추진 중인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한나라당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논란은 일부 최고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은 적극 지지하고 모든 시민이 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 발언에 대해 친박(친박근혜)계 유승민 최고위원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당의 합의가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찬성과 반대를 할지가 결정되는 것 아닌가"라며 지도부

내선(先) 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 나아가 채신파인 남경필 최고위원은 "갈등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비용도 상당히 드는 만큼 이 국면에서는 한발씩 양보해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게 최선"이라며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친이(친이명박)계 성향의 원희룡 최고위원은 "당이 소극적으로 영거주출할 게 아니라 투표를 제고를 위해 담당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립 성향의 나경원 최고위원도 "그동안 무상급식에 대해 당내 의견이 계속 있어왔고, 당은 전부에 공짜나 적극적으로 찬성과 반대를 할지

가 결정되는 것 아닌가"라며 지도부

를 주장했다"면서 "무상급식을 다시

정점화하는 데 반대한다"고 힘을 보탤

홍준표 대표도 중앙당이 주민투표를 적극 도와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다가 친이계 핵심인 심재철·이근현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론으로 적극 개입해 주민투표가 압도적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채신파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 소속 한 의원은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으로 당 차원의 개입이 금지되어 있어 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계파별로 주민투표 지원 여부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저축銀 국조' 여야 충돌 위기

오늘 전체회의서 증인채택 의결 강행여부 주목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증인채택을 위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 위기로 치닫고 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차명진,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최종 타판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우 의원은 김진표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이 증인으로 요청한 자당 의원 7명의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여권 핵심 인사들의 증인채택을 촉구했으나, 차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인은 대부분 '가공의 증인'으로, 가공 증인을 내세워 맞바꾸자고 하는 것은 물귀신 작전"이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증인채택 문제가 합의되지 상황에서 19일 국조특위 전체회의가 열린다는 것. 한나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증인채택 건을 제외한 자료 요청·문서검증·기관보고 대상 등 국조 일정 전반을 담은 실시계획서를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증인채택이 일괄 타결되지 않으면 다른 안건의 의결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광주지검이 확보

한 저축은행 관련 문서 검증을 오는 22일 실시하려면 19일까지는 일정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의결 강행시 국조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어 여야가 정면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차명진 의원은 "민주당과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던 일정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내일이라도 일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으나, 우제창 의원은 "(한나라당의 강행시) 18대 국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몸을 던져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특위가 여야 9명씩으로 구성된 만큼 위원장을 제외한 자당 위원 8명과 비교선단체 위원 1명만 채우면 의결정족수가 확보된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저축은행 국조가 파행을 거듭하자 정치권 일각에선 국조특위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여야 간사 차원의 협상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진 만큼 당대표나 원내대표 등 양당 지도부가 나서 교착국면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대표, 콜센터 현장체험

동고동락 현장체험에 나선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8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청 콜센터에 방문해 콜센터 상담원과 함께 시민들의 전화를 받고 있다. /연습스

국회 독도특위, 내달 12일 독도서 전체회의

최근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대책위원회는 다음달 12일 독도를 방문해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독도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8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현정 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해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특위 위원뿐 아

니라 총리실 독도영토관리대책단과 국토해양부·문화체육·관광·해양경찰청 등 소관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하는 등 정치권과 정부 간 협의체 성격을 띠고 있어 주목된다.

특위 위원들은 독도 관련 현안 보고를 들은 뒤 최근 일본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대한항공 이용자를 지시하고, 자민당 의원들이 율령도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또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 현장을 비롯한 각종 독도 시설을 둘러본 뒤 독도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독도특위는 지난 4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왜곡과 관련한 긴급 현안회의에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결했으나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연기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여의도연구소 소장 정두언

광주·전남발전특위 위원장엔 정용화

한나라당은 18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에 소장파의 핵심인 정두언 의원을 내정했다. 또 제1사무부 총장에는 친박(친박근혜)계 재선 이혜훈 의원, 제2사무부 총장에는 친이(친이명박)계 초선 이춘식 의원을 각각 임명하는 후임 당직 인선을 완료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홍준표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직 인선안을 의결했다. 정두언 의원의 여의도연구소장 내정에는 남경필 최고위원의 천거와 유승민·원희룡 최고위원의 압도적 동의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된 최고위 산하 지역발전특위 위원장에는 이주영(3선) 정책위의장이 겸임하기로 했다.

권역별 지역발전특위위원장에는 ▲서울 정태준(초선) ▲경기 이자철(재선) ▲인천 안상수(전 인천시장) ▲강원 황영철(초선) ▲충청 박성호(전 최고위원) ▲광주·전남 정용화(원외) ▲전북 태기표(원외) ▲부산·울산·경남 서병수(3선) ▲대구·경북 장운석(재선) ▲제주 부상일(원외) 등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정세균 최고 '싱크탱크' 출범식

민주당 정세균(사진) 최고위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국민시대 전북부 준비위원회'가 지난 16일 전북 교육문화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 최고위원과 국민시대 공동대표인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 김완주 전북지사, 백원우·강기정 의원, 한병도 전 의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정 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현정 때문에 민심은 폭발 직전"이라며 "이 정세균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시대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역사를 전진시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시대 전북지부는 화계와 전·현직 지방의원 등이 준비위원회를 활동 중이며 9월까지 1만명의 회원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 준비위는 전일환 전 전주대 부총장이 상임 준비위원장을, 유창희 도의회 부의장이 운영위원장을, 백경태 도의원이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전북취재본부 김철수기자 knews@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비덕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드제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860-29

2011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택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런(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 50% 확정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h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 드립니다.

태양광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주택 사업이란?

일반주택, 공동주택, 국민대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국민적 이용을 확대하여 관련 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태양광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며, 기술발전을 통한 중장기 수출전력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기준상요금(사용전력량 kWh) | 설치시 청구요금 | 월 감 요금 |
|-------------------|-----------|------------|
| 8만 원 (약 45kWh/일) | 약 1,800원 | 약 78,200원 |
| 10만 원 (약 48kWh/일) | 약 5,800원 | 약 94,400원 |
| 12만 원 (약 50kWh/일) | 약 8,900원 | 약 111,100원 |
| 15만 원 (약 54kWh/일) | 약 16,500원 | 약 133,500원 |
| 20만 원 (약 60kWh/일) | 약 30,800원 | 약 198,400원 |
| 25만 원 (약 68kWh/일) | 약 48,000원 | 약 202,000원 |
| 30만 원 (약 74kWh/일) | 약 72,000원 | 약 228,000원 |

*기준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태양광 주택 보급 상담문의 ☎ 062-512-1180 / H.P 011-659-7001